

# "낮선 사람이 더 안전하다...타인 믿어야 유익" 말콤 글래드웰

‘타인의 해석’ 쓴 세계적인 저술가 말콤 글래드웰

백인 경찰과 흑인 사이에 벌어지는 소통 재앙, 왜? "상대가 정직하다는 '진실 기본값' 거슬렸기 때문" "타인을 아는 것은 불가능... 겸손하게 접근해야" "아웃라이어, 탁월함은 재능과 1만 시간의 결합 상품"

흑인에 대한 경찰의 폭력 진압으로 전 세계적인 성토가 일어난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 참사는 백인 경찰 데릭 쇼빈이 조지 플로이드의 절규를 무시했기 때문에 벌어졌다. 최근 공개된 보디캠 녹취록을 보면 참담하다.

"숨 쉴 수 없다"고 호소하던 플로이드는 "엄마 사랑해요 내 아이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해줘요, 나는 죽어요"라고 유언하지만, 쇼빈은 그의 말을 진실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만 소리 질러. 말하는데 산소 엄청나게 든다구."

쇼빈은 왜 플로이드의 고통에 찬 육성을 믿지 않은 걸까. 왜 이런 소통의 재앙이 일어난 걸까. 말콤 글래드웰의 '타인의 해석'은 플로이드 사건이 벌어지기 5년 전의 현장 '텍사스 간선도로로 현장'으로 우리를 데리고 간다. 백인 경찰 엔시니아는 깜빡이를 켜지 않았다는 이유로 흑인 여성 운전자 블랜드를 도로 갓길에서 불러세워 위협하고, 말싸움 끝에 블랜드는 체포되어 감옥에 갇힌다. 블랜드는, 사흘 뒤 유치장에서 자살했다.

미국의 스타 저술가 말콤 글래드웰은 '타인의 해석'에서 이 모든 참사가 '우리가 타인을 극단적 위험 신호로 간주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증명해간다. 한쪽은 백인이고 한쪽은 흑인이었다. 한 명은 경찰관이었고 한 명은 민간인이었으며 이쪽에는 무기가 있고 저쪽에는 무기

가 없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낯선 이었다.

만약 우리가 낯선 이에게 접근하는 방법을 성찰했다면 플로이드가 질식사해서 사망하는 일, 블랜드가 텍사스 유치장에서 죽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요는 경찰이 낯선 이를 대할 때 좀 더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플로이드는 "밀실 공포증이 있어 경찰차에 탈 수 없다"고 했지만, 쇼빈은 그가 거짓말한다고 생각했다. 플로이드는 "죽을 것 같다"고 소리쳤지만, 쇼빈은 그 말을 동료 경찰관과 행인을 선동하는 신호로 오해했다.

말콤 글래드웰은 심리학자 팀 러바인의 '진실 기본값' 이론을 이 재앙의 현장에서 교훈을 끌어내는 주요 근거로 제시한다. 인간은 '타인이 진실하다'는 가정하에 협력하고 진화했다. 가끔 배신도 당하지만, 사기꾼은 보통 사람과 비교해 극소수이며, 그 위험의 정도가 종의 생존을 위협하지 않는다.

'상대가 사실을 말한다'고 믿는 인간의 본능을 완전히 무시하면, 경찰관들은 낯선 이를 과잉 공격하고 건초더미에서 바늘을 찾아내려하고 지역사회는 신뢰를 잃고 초토화된다.

말콤 글래드웰은 '아웃라이어' '다윗과 골리앗' '티핑포인트' 등의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를 쓴 저널리스트 출신 작가다. 최근 저술한 '타인의 해석'에서 그는 타인을 오해한 수많은 엘리트의 사례를 언급한다.

히틀러를 직접 만나고도 전쟁광임을 간파하지 못한 영국 정치가 체임벌린부터, 오랜 기간 내부 스파이에게 우롱당한 미 정보국까지. 첩터마다 성범죄자, 무고한 시민,



자살한 유명인사 등 다양한 유형이 '낯선 인물'로 등장하고, 그에 대한 우리의 오해가 거대한 입상 다큐멘터리처럼 펼쳐진다.

오랫동안 인간의 머릿속을 탐사해온 저널리스트의 결론은 하나다. 우리는 낯선 사람을 쉽게 알 수 없다. 낯선 사람에게 어떻게 말을 걸고 어떻게 다가가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최상의 태도는 '타인이 정직하다'는 훈련된 본능을 믿는 것이다.

"거짓말에 취약해지는 데가로 우리는 효율적 의사소통과 사회적 조정을 얻어왔다. 이득은 크고 그에 비해 비용은 사소하다. 그마저 기회비용일 뿐이다"라고 그는 지적한다.

심도 높은 지식 콘텐츠로 한국인의 사랑을 받는 저술가 말콤 글래드웰을 서면으로 전격 인터뷰했다.

그는 "세상에서 아름답고 의미 있는 일들의 대부분은 낯선 사람과 과감하게 말을 터보면서 시작된다"며 "속이려 드는 사람을 당해내긴 어렵지만, 위험은 감수할 가치가 있다"고 전했다.

-타인을 믿어야 유익하다, 고 진심으로 믿고 있나?

"물론, 나는 7년 전에 한국을 처음 방문했다. 그때 호텔 로비에서 한 낯선 남자가 나에게 말을 걸었다. "괜찮다면 오늘 저녁 저희 부부와 친구 몇 명 하고 저녁을 함께 드시는 건 어떻습니까?" 나는 그의 차에 올라탔고, 그날 이후 그와 친구가 됐다.

내성적이고 낯을 가리는 성격에도 불구하고, 인생에서 낯선 이들의 대화와 요청을 거절하지 않고 받아들여서 예상치 못한 관계의 확장과 즐거움을 얻었다. 나는 환대와 호의를 믿는다. 경험적으로 보면 그 혜택이 위험보다 훨씬 더 크다."

-코로나바이러스는 타인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 '타인은 지옥'이라며 위험 요소로 간주하는 쪽과, '우리는 서로의 환경'이라며 연대하는 쪽이다. 바이러스는 우리가 설정한 '타인의 범위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

"어려운 문제다. 전염병학자들에 의하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은 구성원들 사이에서 일어난다. 실내에서 일어나는 장기적인 접촉이 전염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면밀히 살펴보면 어쩌다 알게 되는 스쳐 지나가는 낯선 사람들은 안전한 사람들이다. 오히려 우리가 걱정해야 하는 존재는 직장 동료, 절친한 친구, 가족 구성원이다."

-연인들이 타인처럼 얽히고설키며 오해를 부르는 영화 '클로저'의 첫 대사는 'Hello, stranger'다. 당신의 책 '타인의 해석'을 봤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른 대사였다. 이 책의 원제를 'talking to stranger(타인에게 말 걸기)'로 정한 이유가 있나? the others와는 어떻게 다른가?

"극적 긴장을 만드는 문장 표현을 좋아한다. 'talking to strangers'가 완벽한 예시다. 나를 제외한 집합 무리로서의 타자가 아니라, 정체를 모르는 '낯선 사람'에게 말을 건다는 그 상태가 중요하다.

생각해보라. 우리의 뇌는 친한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에 익숙하다. 낯선 사람들과는 아예 접촉을 꺼리고 피하려고 한다. 그게 내가 흥미를 느끼는 포인트다. 잘 아는 사람과 쌓은 상호작용 방법으로 잘 모르는 사람과 직면해야 하는 상황!"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에게

▲ 세계적인 경영사상가이자 베스트셀러 저술가 말콤 글래드웰(Malcolm Gladwell)/사진=김영사 제공

게 흥미를 느꼈나?

"스파이! 나는 늘 스파이가 궁금했다. 스파이에 관한 글을 많이 읽었다. 스파이는 왜 즉시 잡히는 법이 없을까. 그들은 어떻게 타인이 자신을 민도록 완벽에 가까운 연기를 할 수 있을까. 몇 년 혹은 몇 십 년 간이나! 그들이 침투해서 기밀을 빼내는 장소는 고도로 훈련받은 정보기관인데도 말이다.

타인을 의심하고 추적하는 정보기관조차 낯선 사람의 진위를 분별해내지 못한다면, 나머지 우리들이야 말해 뭐하겠나. 그런 관점에서 '타인과 소통한다는 게 무엇인지, 관한 연구가 진척됐다.'

-수많은 판단 오류 중 가장 충격적인 사례는 무엇이었나?

"아만다 녹스 사건이었다. 롬메이트의 죽음에 대한 반응이 기괴하다는 이유로 그녀는 살인자로 몰렸다. 우리는 보편적인 몸짓이나 언어, 표정을 바탕으로 타인의 감정과 선악을 판단한다. '표정은 내면을 반영한다'는 '투명성 가정'에 입각해서.

그러나 드물게 태도와 내면이 불일치하는 사람도 있다. 대중이 기대하는 대로 놀... (11페이지에 계속)



▲ 백인 경찰 데릭 쇼빈과 조지 플로이드의 당시 현장/사진



▲ 말콤 글래드웰은 1996년까지 '위싱턴포스트' 뉴욕 지부장을 지낸 저널리스트. 현재 'REVISIONIST HISTORY(수정주의 역사)'라는 팟캐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한국 독자들에게 꼭 들어달라고 당부했다./사진=김영사